

웰빙 차원에서 역기능적 종교성에 관한 질적 탐구*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 연구는 웰빙 차원에서 역기능적인 종교성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질적 분석을 위한 대상자는 종교인(성직자) 6명과 신앙인 6명이었다. 종교인의 경우 개신교 목회자 3명, 불교 종교인 2명, 원불교 종교인 1명이었고, 신앙인의 경우는 개신교 신앙인 2명, 천주교 신앙인 2인, 불교 신앙인 2인이었다. 종교인 6명 중에 한 명이 여성(불교)이었으며, 신앙인 6명 중에는 3명이 여성이었다. 본 연구에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야기식 인터뷰 방식과 Giorgi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22개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중심의미를 파악한 결과 9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중심의미로는 보상추구적 종교성, 권력지향적 종교성, 이기적 종교성, 맹목적 종교성, 비사회적 종교성, 비실천적 종교성, 무체험적 종교성, 정서문제성 종교성 및 인지문제성 종교성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와 중심의미를 바탕으로 척도개발과 같은 추후 연구와 신앙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제언하였다.

주요어 : 질적 연구, 역기능, 종교성, 신앙, 웰빙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2289).

† 교신저자 : 서경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39-742)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Tel : 02-3399-1676, E-mail : khsuh@syu.ac.kr

지금까지 종교 인구를 조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종교를 믿고 있다고 보고하여 왔다(연합뉴스, 2017년 12월 28일자). 게다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인일지라도 종교가 자신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문화관광부, 1997). 특별히 한국인에게서는 동양사회에서 주로 발견되는 내재적 종교성(religiosity)이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유승무, 2013). 굳이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종교성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의식에 기본이 되고 전체적으로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해 왔다(Wilber, 1997). 종교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심리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심리학회에 종교와 관련된 심리학 분과(Division 36)가 존재하게 되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2).

일반적으로 종교는 개인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진다(Frankl, 1967). 종교를 가진다는 것 그 자체 혹은 종교성이 생활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 종교성이 인간의 적응이나 웰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완전하게 결론내릴 수는 없지만, 종교성이 개인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 지지되었다(Ashkanani, 2009; Diener, Tay, & Myers, 2011; Kirkpatrick, 1997).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Chatters et al., 2008)에서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기분장애를 덜 가지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예배나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비율이 낮았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심리검사에 다르게 반응

하기 때문일 수 있고, 그들이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 종교 외에는 다른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정신질환 유병률이 낮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게다가 종교성이 정신건강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일례로 REBT의 주창자인 Ellis(1980)는 정신건강에 대한 종교성의 긍정적 효과나 정신질환에서 대한 종교성의 치료적 순기능을 강조하는 Bergin(1980)의 “심리치료와 종교적 가치관(Psychotherapy and religious values)”이란 논문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심리치료와 무신론적 가치관(Psychotherapy and atheistic values)”이란 논문을 그 해 같은 저널에 게재하며 종교성의 역기능을 강조하였다. Diener 등(2011)의 연구에서는 종교성이 웰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검증되었는데, 상당수의 신앙인들이 종교를 떠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게다가 종교성이 정신병리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으며(Rosenstiel & Keefe, 1983), 종교성에 치료적 효과와 병리적 효과가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Andreasen, 1972; Bergin, 1983). 또한 종교성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고 일부 연구에서 종교의 역기능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종교성의 부정적인 측면은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

그런데 종교성에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결론짓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종교성의 긍정적 측면이 너무 부각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의도적으로 연구가 수행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을 근거로 그런 주장이 나왔다. 일례로 Provonsa(2006)도 종교성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일반

적인 믿음과는 달리 실제로는 사회적 문제를 많이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속적이고 종교성이 약한 다른 국가에서보다 종교성이 강한 국가인 미국에서 살인, 자살, 십대의 임신과 낙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분석한 Paul(2005)의 비교문화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종교성이 건강하지 않은 사회를 만든다고 결론짓는 데에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선 다른 국가에는 없는 미국 사회가 가진 여러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에는 여러 허점이 있다.

그렇더라도 부정적인 측면의 종교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종교성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메타분석(Bergin, 1983)을 통해 종교성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분석에 포함된 24개의 연구들 중에 절반의 연구에서 종교성이 정신건강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약 25%의 연구에서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24개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종교성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계수들은 -.32에서 +.82까지 매우 광범위하였다. 이런 결과는 종교성이 정신건강이나 웰빙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연구가 수행되기 전에도 Andreason(1972)이 종교를 양날의 검으로 표현하면서 종교성이 개인을 정신적으로 건강하거나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신적 문제를 가지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적응적인 사람도 있고 부적응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종교성과 웰빙 간의 관계를 분석한 56개의 연구를 기초로 한 메타분석(Witter, Stock,

Okum, & Haring, 1985)에서는 종교성과 주관적 웰빙 간의 상관계수의 범위는 .14에서 .25까지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웰빙에 대한 종교성의 설명력이 2%에서 6%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순기능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이다. 실증연구에서 종교성과 웰빙 간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변인의 개념화의 문제나 측정의 한계로 해석되기도 하고(Chamberlain & Zike, 1989), 성별이나 연령 혹은 인종 등이 그 관계를 조절하여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Veenhoven, 1994). Ellison(1991)은 종교에 대한 몰입 수준이나 헌신의 정도에 따라 정신건강이나 웰빙에 대한 효과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교적 목적과 같은 어떤 외적인 이득을 위해 종교를 지향하는 외재적 종교성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중심이 되는 내적인 종교성만이 웰빙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Argyle, 2001).

그러나 종교성에는 웰빙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웰빙을 방해하는 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성과 웰빙 간의 상관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Piedmont & Moberg, 2003). 다시 말해 Andreason(1972)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가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검증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들(서경현, 2014; 황혜리, 서경현, 김지윤, 2011)에서 신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종교적 안녕감은 불안이나 우울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고 심리적 웰빙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실존적 안녕으로 보정할 경우 종교적 안녕은 불안이나 우울과는 정적으로, 심리적 웰빙은 부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이는 종교적 안녕감에 정신건강

이나 웰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종교성을 웰빙 차원에서 조명하고 그 역기능적 차원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려고 한다. 아직까지 종교성의 역기능적 차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종교성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심리학적 차원에서의 고찰과 개인에게 부정적일 수 있는 종교성의 특정 요인에 대한 실증적 탐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종교성에 부정적인 면이 대부분이라고 믿었던 Ellis(1986)도 그 입장을 바꾸어 종교성에 순기능적인 면이 많지만, 자기 패배적이고 절대적인 종교성이 개인의 정신건강인 웰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었다(Nielsen, Johnson, & Ellis, 2001). 그런 차원에서 서경현 등(전은식, 서경현, 2012; 정성진, Ji, 김신섭, 서경현, 2010)은 절대적인 종교성인 종교적 원리주의가 개인의 웰빙을 위협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하였다. 하지만, 종교적 원리주의에 역기능적인 측면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종교 지향이 강한 사람들에게 종교적 원리주의는 웰빙이나 행복감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종교성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죄책감도 개인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죄책감에도 역기능 뿐 만 아니라 순기능적 요소들이 더 많다는 지적(Batson, Schoenrade, & Ventis, 1993)이 있기 때문에, 이 요인이 종교성의 부정적 측면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Pargament, Smith, Koenig과 Perez(1998)는 종교적 대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며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 요인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절대자인 신의 처벌이라는 생각, 절대자에 대한 불평, 영적인 불평, 악한 세력의 저주나 방해라는 생각, 스

트레스 상황에서 절대자인 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절대자인 신의 사랑이나 돌봄에 대한 의심,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등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런 요소는 종교성 그 자체라기보다 역기능적인 종교성의 인지적 측면만이 강조된 것이다.

종교성의 역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기능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Peterson & Roy, 1985; Bowie, Juon, Taggart, Thorpe, & Ensminger, 2017; Moreno & Cardemil, 2013; Parveen, Sandilya, & Shafiq, 2014)에서는 종교성이 개인의 적응을 돕고 우울이나 불안감을 줄여주는 심리적 웰빙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성은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미국에서 911 테러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종교성이 강할수록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정신적으로 더 강인하며 신체질환을 걸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McIntosh, Poulin, Silver, & Holman, 2011). 이런 연구 결과는 종교성이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건강과 웰빙을 지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는 것이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었다(Murray-Swank et al., 2005). 그런 이유에서 종교성의 한 부분인 영성을 정신질환을 중재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대한 영적 중재의 효과를 검증한 국내외 21편의 논문을 기초로 한 메타분석(오복자, 김영현, 2012)에서는 우울에 대한 영적 중재의 효과 크기는 -.69, 불안에 대한 효과 크기가 -.76으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이는 정신적 문제에

대한 영적 중재의 효과가 임상적으로 주목할 만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종교성에 있는 이유를 Idler(1987)는 세 가지 가설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가설은 사회적 응집성으로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하게 되면 사회망이 넓어져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웰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재적 종교지향에서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가설은 일관성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 자신이 처한 현실이나 미래에 대해 운명론적으로 해석하거나 낙관적으로 조망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다. 셋 번째 가설은 신정론으로 신앙이 고통이나 고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부정적인 측면을 희석시켜 웰빙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종교성이 인지적 해석의 틀로 작용하여 적응성을 키운다는 설명도 있다(Peterson & Roy, 1985). 신앙이 주위환경이나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Idler(1987)의 일관성 가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해석의 틀은 개인의 웰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삶의 의미나 충족감과 같은 실존적 안녕을 느끼게 하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 순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종교성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감과 목적성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홍경란과 이지연(2014)의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가 내재적 종교성과 정신건강 사이를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한 연구(Poloma & Pendleton, 1991)에서 실존적 웰빙 차원으로서의 의미감이나 목적성은 삶의 만족과 .52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eker, Peacock과 Wong(1987)은 의

미감이나 목적성은 청장년층에게는 안정된 정체감을 가지게 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생산성이나 창조성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고, 노년기에서는 살아온 삶을 통합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Pollner(1989)는 종교성이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결 자원을 직접 제공하기도 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거나 긍정적인 정체감을 가지게 하여 웰빙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그런 느낌이 미래의 삶에 대한 일관된 방향성을 제공하며 좌절하게 만드는 사건이나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상황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하여 순기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종교적 신념이 통제감과 낙천성을 증진시켜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심리적 웰빙을 도모할 수 있다(Dull & Skokan, 1995). 박미하(2014)의 연구에서도 자존감이 종교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ngh(2014)이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이나 웰빙과는 내재적 종교성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외재적 종교성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힌두교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내재적 종교성과 외재적 종교성 모두 정신건강이나 웰빙 변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종교성이 강한 대학생들이 정서조절을 위해 역기능적 전략보다 적응적 전략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박신영, 이서정과 현명호(2012)는 내재적 종교성을 감사 성향이 매개하여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를 하게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신재은과 현명호(2010)는 외재적 종교성이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를 하게 하여 특정 상황에서 용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수행된 66개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종교성과 정신건강 및 웰빙 간의 관계를 검증한 메타분석 연구(설경옥, 박지은, 박선영, 2012)에서 종교성과 불안 간의 상관계수의 평균이 $-.024$ 였으며, 종교성과 우울 간의 평균 상관계수는 $-.176$ 이었다. 이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종교성은 불안과 유의한 관계가 없을 수 있으나 우울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그렇더라도 이런 결과는 종교성과 우울이 공유하는 변량이 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종교성과 웰빙 간에 공유하는 변량은 이보다 컸다. 이 메타분석에서는 종교성과 웰빙 간의 평균 상관계수는 $.263$ 이었다. 이는 종교성과 웰빙 간에 공유하는 변량이 약 7%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들에서는 종교성이 정신건강 증진 효과보다는 웰빙 증진 효과를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도 기대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종교성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종교성에 웰빙을 저해하는 역기능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종교성이 정신건강에 대한 병리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Bergin, 1983; Rosenstiel & Keefe, 1983). 그런데 종교성에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Bergin, 1983), 그 역기능이 순기능에 묻히는 경우가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순기능이 더 많은 종교성에 숨겨져 있는 역기능을 추적해야 한다. 예를 들어 Peacock과 Poloma(1999)가 발달선상에서 종교성이 삶의 만족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연구하였을 때에도 그런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삶의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종교적 요인에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어떤 연령대에서도 신과의 친밀감이 개인의 삶의 만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26세에서 35세 사이의 연령대에서는 종교행동 중에 대화형식의 기도(colloquial prayer), 36세에서 45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묵상기도(meditative prayer)가 삶의 만족과 부적 관계가 있었다.

내재적 종교성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외재적 종교성은 그와는 반대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Genia & Shaw, 1991).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박미하(2014)의 연구에서도 내재적 종교성은 우울과 부적 관계가 있었으나 외재적 종교성은 우울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신재은과 현명호(2010)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종교성은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외재적 종교성이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연구들(전은식, 서경현, 2012; 정성진 외, 2010)에서 내재적 종교성이 주관적 웰빙과 정적인 관계가 있지만 외재적 종교성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외재적 종교성에 웰빙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요소와 방해가 되는 요소 모두가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더 많이 추구하는 외재적 종교지향을 더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외재적 종교지향에 역기능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과정에서 외재적 종교성 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종교와 관련된 죄책감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죄책감은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도 있다(Tangney, 1993). Maltby(2005)는 상담이나

심리치료 서비스를 찾는 종교를 가진 내담자들에게서 비적응적 죄책감을 살피려고 할 때 외재적 종교성과 건강하지 않은 죄책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외재적 종교성이 죄책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차원에서의 외재적 종교성은 도덕 표준과 관계가 있었으나 자기중심 차원의 외재적 종교성은 상태 죄책감과 특성 죄책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Hunsberger, Alisat, Pancer와 Pratt(1996)는 융통성 없는 절대적 종교성이 편견을 가지게 하여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부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성격심리학자 Allport(1954)도 종교성에 편견을 없애는 요소도 있지만 편견을 생기게 하는 요소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였다. Altemeyer와 Hunsberger(1992)는 종교에서 편견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종교적 원리주의를 꼽았다. 이들이 말하는 종교적 원리주의란 인류와 신성에 관해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본질적으로 조금도 틀림없는 확실한 진리로 여기는 것이다. 종교적 원리주의자들은 그 진리가 악의 힘에 근본적으로 저항할 수 있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믿고 따르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정성진 등(2010)의 연구에서는 종교지향이 강한 경우 종교적 원리주의는 주관적 웰빙과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종교지향 수준이 낮을 경우에도 종교적 원리주의는 웰빙과 부적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은식과 서경현(2012)의 연구에서도 종교적 원리주의가 주관적 웰빙과 유의한 부적 관계가 없지만, 종교적 원리주의에서 내재

적 종교지향 부분을 제거하면 주관적 웰빙과 부적 관계가 있었다. 이는 종교적 원리주의 전체는 역기능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역기능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을 종합해보면 기존의 종교적 변인이나 심리적 변인들은 종교성에 포함되어 있는 역기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종교와 관련된 정서, 사고, 행동 중에 개인이나 집단의 웰빙을 해칠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해야 하지만, 거의 원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자세로 종교성에 포함되어 있는 역기능적 요소를 탐색하여 결론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에 포함되어 있는 역기능을 개인의 웰빙 차원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종교성의 부정적인 면을 구체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지금까지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정신건강이나 웰빙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중재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 계속 넘기 힘든 가지 장애물을 남겨 놓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역기능적인 종교성을 개념화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데 기초를 마련하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에서 질적 분석을 위한 대상자들은

종교인 6명과 신앙인 6명이었다. 종교인으로 개신교(기독교), 천주교, 불교로 각각 2명씩을 생각하고 남녀 두 명의 천주교 성직자들을 접촉하였으나 천주교 성직자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에 관한 의견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결론적으로 개신교 목회자 3인, 불교 종교인 2인, 원불교 종교인 1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앙인의 경우는 개신교 신앙인 2인, 천주교 신앙인 2인, 불교 신앙인 2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표 1. 참여자들의 특성

| 사례 | 종교 | 신분 | 성별 | 연령 | 학력(전공) | 형제관계 | 가정환경 및 종교관련 특이사항 |
|----|-----|-----|----|----|------------------------|---------|--|
| 1 | 불교 | 종교인 | 여 | 61 | 대졸 (사회복지) | 7남매/막내 | 계룡시 출생, 20세 서울이주, 17세 모 사망 20세 부 사망 / 불교 모태신앙 38세 입적 |
| 2 | 불교 | 종교인 | 남 | 61 | 석사 (사회복지) | 7남매/장남 | 전남 영광 출생, 성장시 가정형편 어려움 / 어머니 불교인이었으며 고졸 직후 출가, 정 식입적은 1993년 |
| 3 | 원불교 | 종교인 | 남 | 59 | 대졸 (원불교학) | 4남1녀/4째 | 경남 양산 출생, 가정형편 좋음 / 고등학교 1 학년 동아리 선배 소개로 원불교인이 됨 |
| 4 | 개신교 | 종교인 | 남 | 49 | 석사수료 (신학) | 4남2녀/5째 | 전남 광양 출생, 초년기 가정형편 어려움 / 모태신앙 24년 전 목회 시작 (아버님 무교) |
| 5 | 개신교 | 종교인 | 남 | 45 | 학사 (토목공학) 석사(신학) | 5남2녀/막내 | 충주시 출생, 부 무직으로 형편 어려움 / 중 2때부터 교회 출석, 2000년부터 사역 시작 |
| 6 | 개신교 | 종교인 | 남 | 59 | 박사 (신학) | 1남3녀/장남 | 경기 출생, 부 병원직원, 경제 넉넉지는 않 음, 외국생활 20년 / 목회 20년(한국에서는 4 년 반), 현재 신학대학 교수(7년 간) |
| 7 | 불교 | 신앙인 | 남 | 27 | 석사 (상담심리) | 2남1녀/2째 | 서울 출생, 성장시 가정형편 중상 / 몇 가지 종교를 탐색 후 14년 전부터 불교인이 됨 |
| 8 | 불교 | 신앙인 | 남 | 52 | 고졸 | 8남1녀/막내 | 전남 고흥 출생 성장시 가난하지 않았음 / 34세에 사업으로 큰 돈 날리고 불교인이 됨 |
| 9 | 천주교 | 신앙인 | 여 | 52 | 대졸 (경영학) | 2남4녀/4째 | 완도 출생 가정형편 좋았음 / 중학생 때 집 근처 성당에서 세례 받고 천주교인이 됨 |
| 10 | 천주교 | 신앙인 | 남 | 65 | 고졸 | 2남3녀/4째 | 전주시 출생 가정형편 좋았음 / 모 천주교인 이었으나 자신은 무교였다가 20년 전에 천주 교인이 됨 |
| 11 | 개신교 | 신앙인 | 여 | 46 | 석사 (상담심리) | 2남1녀/막내 | 중국 연변 출생 가정형편 어려웠음 / 1999년 남편을 만나면서 개신교인이 됨 |
| 12 | 개신교 | 신앙인 | 여 | 38 | 고졸 | 1남1녀/장녀 | 고양시 출생 가정형편 넉넉지 못했음 / 10년 전 전도사인 친구에 의해 개신교인이 됨 |

종교인과 신앙인의 일반적 특성과 성장 시 가정형편과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와 관련된 사항을 표 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종교인의 연령 분포는 만 45세에서 61세까지였으며, 신앙인은 27세에서 65세까지였다. 종교인 6명 중에 한 명이 여성(불교)이었으며, 신앙인 6명 중에는 3명이 여성이었다. 참여자들의 중에 대부분이 많은 형제(자매) 수를 보고하였으며, 종교인 혹은 신앙인이 된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가정환경과 종교와 관련된 신상정보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절차

조사절차는 연구윤리 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번호: 2-1040781-AB-N-01-2016041HR)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2016년 9월부터 연구 대상인 종교인과 신앙인을 모색하였고 접촉한 종교인이나 신앙인에게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 방법도 일부 활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천주교 성직자로부터 종교와 관련된 면접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 성직자를 접하며 알게 되어 다른 교구의 성직자들에게 확인하여 그런 입장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원불교 성직자와 개신교 성직자가 추가로 참여자가 되었다.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도 표준화하였다. 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질문과 역기능적 종교성을 묻는 질문들을 표준화하여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웰빙에 대한 역기능적 종교성을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을 표준화하였다.

각 영역의 질문내용이 포함된 목록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각 영역의 질문이 포함된 세 페이지 가량의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정보로 성별, 연령, 출신지, 형제관계, 혼인여부, 성장한 곳, 성장할 때의 가정환경과 가정형편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인적사항, 학교생활이나 대학을 다닌 적이 있으면 전공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 학력사항, 현재의 거주환경과 생활환경의 불편함이나 예측되는 미래의 생활환경을 포함한 환경적 정보를 수집하도록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또한 현재의 종교를 믿게 된지 얼마나 되었는지, 현재의 종교를 믿기 전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적이 있었는지, 종교를 믿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를 물어 개인의 종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매뉴얼화 하였다.

역기능적 종교성을 행동 차원으로 종교행동, 종교행동의 결과 및 그것을 실천했을 때의 감정과 행동원인에 관한 질문을 하고, 역기능적 종교 신념과 그런 신념에 의한 결과와 감정, 그리고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된 원인에 관해 질문하는 루틴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역기능적 종교행동에 대한 질문은 신앙을 해오면서 웰빙을 저해하는 종교적 행동, 즉 신앙행동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이전에 행했던 그런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런 행동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떠하였고 그런 정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묻도록 하였다. 또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 웰빙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런 점을 진술하게 하고, 실천하지 않았을 때의 경험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하고 그런 감정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도 묻는

질문들로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그런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데, 구체적으로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여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성장배경이 그런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도록 하는 절차를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역기능적인 종교 신념, 즉 인지적 차원에서 종교의 역기능을 묻는 질문은 신앙을 하면서 행동과 웰빙을 저해하는 생각이나 신념으로는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혹은 타인이 종교적으로 행복을 저해하는 생각이나 신념을 보인 것을 목격하였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묻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매뉴얼에는 그런 역기능적 신념의 결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본인의 경험이나 타인에게 나타난 것을 목격한 경험들을 진술하도록 하는 질문들을 포함시켰다. 또한 구체적으로 역기능적 종교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종교적으로 역기능적인 생각할 때 경험한 정서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매뉴얼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행동적 차원에 관한 질문에서처럼 역기능적 종교 신념의 원인을 묻는 질문도 포함시켰다.

또한 종합적인 차원인 역기능적인 종교성을 묻는 질문도 매뉴얼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요소 중에 사람을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들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와 유사하게 종교적 요소 중에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것들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이에 포함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와서 생각하니 본인이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되었는데’라고 생각되는 점들이나 다른 신자 중에서 ‘저렇게 신앙하면 안 되는데’라고 느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진술하도록 하는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요약하면, 잘못 신앙한다고 생각하는 표시들을 자

세히 진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종교인과 신앙인에게 질문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 매뉴얼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지만 그 틀은 거의 같았다. 예를 들어, 종교인들에게는 소속된 종교기관에 성직자가 되기 위한 학력조건이 어떠한지 등의 정보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고, 성직자 개인의 경험 외에 신앙인들을 접하면서 지각하게 된 역기능적 종교성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종교인과 신앙인 모두에게 순기능적인 종교성에 관한 내용에 대한 질문도 매뉴얼에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순기능의 반대가 역기능적 요인이 될 수 있는지도 탐색하기 위함이다. 순기능의 경우도 질문의 차원과 방식이 역기능적 종교성에 대한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매뉴얼을 가지고 시행한 인터뷰는 2016년 12월 천주교인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말 개신교 종교인을 인터뷰하는 것으로 마감되었다. 면대면 인터뷰 외에도 질적 자료 정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전화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질적 자료 수집과 분석 및 해석

질적 연구방법은 종교와 같은 문화적으로 상이한 사회현상 속에서의 개인의 특성과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의미의 틀을 개념화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것이다. 확률이나 통계를 이용해 기술하고 예측하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이 자신의 삶이나 문제를 이해한 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해석을 도구로 하여 그것을 분석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이효선, 2005). 이런 질적 연구는 현상학이나 해석학 등을 기반으로 발전한 것으로 과학 연구에 인문사회학적

방식을 접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는 이론과 실증적 탐구 모두가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 이전에 혹은 연구 초기에 자신의 이론을 전개시키거나 적용하는 것은 연구자의 고정관념이 연구 내용을 오염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연구자의 이론이나 고정관념은 대상자인 종교인의 의견이나 신앙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자의 능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 해석은 연구 도중이나 말미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질적 연구에 있어서 이론은 현장에서의 자료수집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고 그것이 연구 중에 정련되고 검증되며 점차적으로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교화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는 분석적 귀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Schütze(1984)의 이야기식 면접을 활용하였다. Schütze는 이 방식을 한 개인의 삶의 구조와 규칙의 의미를 해석학적 재구성하기 위해 활용하도록 고안하였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수집은 연구보조원이 하고, 분석에 필요한 면접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대상자의 모든 진술은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며 작성한 필사본을 확인하고 연구보조원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Giorgi(2009)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 전략을 활용하였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상자의 진술을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비평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술(記述)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숙고하였다. 두 번째, 기술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와 다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세 번째,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대상자의 말 그대로 본래 의미의 단위를 확인하였다. 네 번째, 대상자가 표현한 경험을 나타내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주제를 확인하였다. 다섯 번째, 그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상자가 경험하는 중심의미를 연구자의 언어로 바꾸었다. 여섯 번째, 중심의미를 총합하여 각 대상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인 상황 구조적 기술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상황 구조적 기술을 통합하여 전체 대상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인 일반 구조적 기술을 만들었다.

질적 연구에서 Guba와 Lincoln(2005)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논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사실적 가치인 신빙성, 적용에 있어서 적합성, 신뢰수준인 일관성, 객관성이 보장된 중립성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 가치로서의 신빙성은 물론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나 신앙의 고정관념을 연구 초기 자료수집 전에 미리 글쓰기 방식을 통해 분석하여 문서화 한 후 자료 수집, 즉 면접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생한 진술 그대로를 수집하였다. 또한 녹음한 내용과 연구자의 필사본 사이에 고정관념에 의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면접함으로써 그들이 신앙과 삶을 잘 기억하고 표현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종교성과 생활방식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다양한 환경과 배경을 가진 신앙인들을 선정하여 연구하려고 하였다. 또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Giorgi(2009)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하였다.

웰빙 차원에서 질적으로 분석된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Guba와 Lincoln(2005)의 논점을 사용하였다. 사실적 가치로서의 신빙성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초기자료 수집 전에 미리 글쓰기 방식을 통해 분석하여 문서화 한 것을 비교하며 해석에 고정관념이 포함되는지를 점검하였다. 끝으로 세 명의 전문가(국문학자, 신학자, 심리학자)의 자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진술 내용 중에 순기능적 종교성으로부터 역기능적 종교성을 구분해 내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해석하여 적용 차원에서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결 과

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132개의 진술로부터 22개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중심 의미를 파악한 결과 9개로 구분할 수 있었다. 표 2에 진술내용을 근거로 도출된 주제와 중심의미를 제시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심의미로 보상추구적 종교성, 권력지향적 종교성, 이기적 종교성, 맹목적 종교성, 비사회적 종교성, 비실천적 종교성, 무체험적 종교성, 정서문제성 종교성 및 인지문제성 종교성이 도출되었다. 그럼 중심의미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보상추구적 종교성

보상추구적 종교성은 기복신앙, 이익추구 신앙 및 물질주의 신앙과 같은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복신앙은 복을 받기 위해서만

신앙을 하는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것보다는 축복을 받는 것이 주목적인 종교성을 의미한다. 그런 진술은 주로 종교인들이 하였고, 불교 신앙인인 7번 사례만이 기복신앙의 역기능성을 보고하였다. 종교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용하거나 종교적 친분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이 주제에 포함된다.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떠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진술은 종교인이나 신앙인 모두 고르게 나타났다. 보상추구적 종교성에는 물질주의와 관련된 신앙도 포함되었다. 이것에는 소유욕이 지나친 신앙이나 계산적인 신앙 그리고 물질적인 무언가를 획득하는데 종교를 사용하는 태도가 포함되었다.

기복신앙 진술의 예(사례 2):

“기복적인 신앙을 해서 어떤 그 소원성취가 되어졌다고 믿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아들이 좋은 대학을 갔다던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취직이 잘됐던가. 시집장가를 잘 갔다던가 하는 그런 소원성취 있잖아요.”, “복을 빌었는데 안됐을 경우 실망을 하거나 절을 옮기거나 아니면 개종을 하거나 심지어 스님을 원망하거나 성직자를 원망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이익추구 신앙 진술의 예(사례 9):

“성당을 다니며 뭐가 정말 보기 싫은가 하면 종교로 인해서 친해진 것을 이용해서 다단계를 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친분을 사업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겁니다.”

물질주의 신앙 진술의 예(사례 7):

“소유에 대한 욕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종교적 신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욕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되는대로 얻을 수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지향적 종교성

권력지향적 종교성은 기득권 집착 신앙과 과시적 신앙을 포함한다. 기득권에 집착하는 신앙은 종교단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마음이 편한 상태를 의미한다. 종교와 관련하여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어 종교단체 내에서 정치적이 되고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생각과

표 2. 진술내용에 근거한 주제와 중심의미

| 주제 | 진술한 사례 | 중심 의미 |
|---------------------|-----------------------------|-----------|
| 기복신앙 | 1, 2, 3, 5, 7, 11 | |
| 이익추구 신앙 | 5, 6, 8, 9, 10, 11 | 보상추구적 종교성 |
| 물질주의 신앙 | 2, 7, 8, 12 | |
| 기득권 집착 신앙 | 1, 2, 3, 4, 5, 9, 11 | |
| 과시적 신앙 | 4, 5, 6, 10, 12 | 권력지향적 종교성 |
| 독선적 신앙 | 2, 4, 5, 6, 8, 11, 12 | |
| 강요적 신앙 | 2, 3, 4, 5, 6, 7, 8, 11, 12 | 이기적 종교성 |
| 교리 맹신주의 | 1, 2, 4, 9, 10, 11 | |
| 과도하게 몰입된 신앙 | 1, 5, 6, 8, 9, 10, 12 | 맹목적 종교성 |
| 가정에 부정적인 신앙 | 6, 9, 12 | |
| 남에게 상처 주는 신앙 | 6, 7, 9, 10, 12 | |
| 대인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신앙 | 2, 5, 10 | 비사회적 종교성 |
| 대인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는 신앙 | 5, 6, 9, 10, 11, 12 | |
| 베풀지 않는 신앙 | 1, 3, 4, 6, 8, 9, 10, 12 | |
|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 | 1, 2, 3, 4, 5, 6 | 비실천적 종교성 |
| 변화와 발전이 없는 신앙 | 2, 3, 5, 6, 11, 12 | |
| 기도를 통한 종교적 체험 없는 신앙 | 1, 3, 4, 5, 6, 7, 8, 9, 12 | 무체험적 종교성 |
| 부정정서를 야기하는 신앙 | 4, 6, 7, 9, 10, 11 | |
| 정서 조절에 문제가 있는 신앙 | 1, 2, 4, 7, 10, 11, 12 | 정서문제성 종교성 |
| 불평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신앙 | 2, 3, 9, 11, 12 | |
|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신앙 | 3, 5, 6, 7 | 인지문제성 종교성 |
| 인지적 해석에 문제가 있는 신앙 | 1, 3, 4, 5, 6, 7, 9, 10 | |

행동들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진술은 대부분 종교인으로부터 진술되었다. 종교인들은 종교단체 내에서 이런 권력욕구나 인정욕구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는 듯싶다. 자기를 과시하거나 보여주기 식의 신앙도 열등감이 발현된 종교성이다. 자기 내면과 겉으로 드러내는 신앙이 다른 것도 과시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기득권 집착 신앙 진술의 예(사례 3):

“종교단체도 조직이다 보니 종교적 가르침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조직 내에서 정권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단체에서도 가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죠. 조직이 커지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성직자나 신도 모두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다 보니 그 안에서 정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지만, 제도적 보완을 통해 최소화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과시적 신앙 진술의 예(사례 5):

“난 이렇게 하고 있어, 넌 안하지?”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누르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인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성일 수 있는데, 그런 본능을 종교라는 이름을 빌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기적 종교성

진술을 분석해 보면 이기적 종교성에는 독

선적 신앙, 강요적 신앙 또는 죄를 규정하는 신앙이 포함한다. 독선적 신앙은 타인의 종교적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으로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신앙을 의미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종교관만 옳은 것이고 그와 다른 종교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행동도 자기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면 좋은 행동이고 종교적 의견이 다른 사람이 하면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도 이런 태도이다. 독선적 신앙이 웰빙에 역기능적이라고 보는 진술도 여러 건이었다. 강요적 신앙이란 자신이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며 타인을 질책하고 평가하며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사고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한다. 죄를 규정하는 신앙도 이기적인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신앙은 타인의 행동을 죄라고 생각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옳고 그름을 자신이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독선적 신앙 진술의 예(사례 6):

“독선적인 것이죠. ‘내가 믿는 것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아마 이것이 자기를 굉장히 독선적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보면,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믿는 것이 옳다 네가 믿는 것은 틀렸다 기준이 뭐냐’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기준을 세우고 맞춰보니까 내가 믿는 것이 더 맞고 네가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잘못되었으니까 내가 너를 혼내 주어야겠다. 내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너를 나에게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강요적 신앙 진술의 예(사례 8):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의 차이니까. 난 저 친구가 참 좋은데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악행 저지르는 사람과 같이 별사람이 다 있어요. 맨날 살 생하는 사람이 있죠,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 그제 살생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못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맹목적 종교성

교리적 맹신주의와 과도하게 종교에 몰입되는 태도가 맹목적 종교성이었다. 교리 맹신주의란 자기가 믿는 교파의 교리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다른 신앙인들과 교리 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교파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런 교리 맹신주의에 빠진 신앙인은 종교적 교파의 이동을 선동하거나 자신이 믿는 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맹목적인 신앙에는 과도하게 몰입된 신앙이 포함되는데, 이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종교 활동을 하거나 모든 생활을 무시하고 종교에만 올인 하는 신앙을 의미한다. 또한 종교인에게 집착하는 것도 이 주제에 포함된다. 이 주제는 신앙인은 물론 종교인들도 많이 진술하였다.

교리 맹신주의 진술의 예(사례 10):

“종교 얘기하다보면 잘못하면 언쟁이 되어버린다고. 저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면 종교하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래요. 끝이 안 좋더라고. 내 종교도 비판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누가 자기 종교를 비판해 오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반응하고 갈등이 생기고요.”

과도하게 몰입된 신앙 진술의 예(사례 5):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가정을 외면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종교적인 것보다 가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이 필요로 할 때 무시하고 무작정 교회 일을 하다보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도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비사회적 종교성

가정에 부정적인 신앙, 남에게 상처 주는 신앙, 대인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신앙 및 대인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는 신앙이 주제로 도 출되었는데, 이를 비사회적 종교성으로 명명하였다. 가정에 역기능적인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가족과 갈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를 가지게 되어 가족과 소통이 되지 않게 되었거나 가족에게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배우자를 정신적으로 종교인이거나 종교 그 자체로 대체하는 차원에서 신앙을 하였을 때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신앙도 비사회적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타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종교와 관련하여 핍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남을 존중하지 않거나 배려하지 않는 신앙

에 대한 진술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것도 불교 차원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 주제에 관련하여 총 10건이 넘는 진술이 있었지만, 종교인 한 명(사례 6)에 의한 두 건의 진술 외에는 모두 신앙인들로부터 진술되었다.

도출된 주제인 대인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신앙도 비사회적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이나 함께 하는 것의 행복을 모르는 신앙은 웰빙에 역기능적이라는 진술이 있었다. 불교 종교인 사례 2는 우리가 모두 서로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그런 역기능적 사고나 행동을 낳을 수 있다는 식의 진술을 하였다.

대인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는 신앙도 비사회적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신앙인과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진술되었다. 그리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아 사회성이 떨어지는 신앙인에 관한 진술도 이 주제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가정에 부정적인 신앙 진술의 예(사례 9):

남편의 종교 때문에 갈등이 생기니까 ‘시댁에 가서 3개월만 살아봐라. 그러면서 생각을 서로 해보자. 난 나대로 힘들고 당신은 당신대로 종교 위주로 살아야 되니까 따로 살아보자’. 그리고 나서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라서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 시점이 그 종교에 있는 그쪽에 사람에게 우리 남편이 돈을 떼인 거예요. 남편이 거기에 실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종교를 약간 멀리 하더라고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신앙 진술의 예(사례 12):

“교회 와서 아이들을 풀어놓고 하나 신경 쓰지 않아서 남들에게 피해주는 것도 보기 안 좋고요. 혼자 저렇게 하고 싶을까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주변에 피해가 간다는 생각도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성전에서 버럭 화내는 분도 계세요. 연세가 70대 정도 된 본인에 항상 정해놓은 그 자리에만 앉으셔야 하는 분이예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셨다던가 그런 경우에 교회에 새로워서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좋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대인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신앙 진술의 예(사례 2):

“우리가 모두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세상을 분별하지 않으면 사랑스럽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나 또한 그런 것이니까요. 분리되어있지 않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대인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는 신앙 진술의 예(사례 10):

“종교생활을 하면서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중요해요. 종교를 가지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가서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일을 더 했네, 안 했네.’를 따지면 안돼요. 헤어지면서 ‘오늘 힘들었지?’라고 하고 ‘형님 수고했습니다.’ 이런

게 하면서 지내야지. 성당에 다닌다면 공동체 생활에 적응을 잘 해야죠. 목표는 같지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종교생활 못해요.”

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흔히들 설교는 잘 한다고 그러잖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정말 말은 잘하는데 차라리 그런 말보다 그냥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요.”

비실천적 종교성

비실천적 종교성에는 베풀지 않는 신앙과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이 포함되었다. 종교에서는 봉사하고 베푸는 것을 강조하는데 베풀지 못하는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으로 진술되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진술은 봉사하지 않는 신앙, 베풀지 못하는 신앙 외에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주지는 못하는 신앙, 선하게 보이지 않는 신앙과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신앙이 있었다.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에 대한 진술로는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과 법을 따르지 않는 신앙,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 교리공부나 전도활동을 하지 않는 신앙, 소극적인 신앙 등이 있었다. 특이한 것은 모든 내용이 종교인으로부터 진술되었고 신앙인들은 그런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베풀지 않는 신앙 진술의 예(사례 4):

“신앙을 하면서 구호하고 봉사하는 속에서 얻는 기쁨을 가지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신앙은 메말라 갈 수 밖에 없지요. 베푸는 것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는 신앙은 오래 가기 힘듭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 진술의 예(사례 5):

“기독교인들이 육먹는 것 중에 하나가 말만 잘 한다는 거지요. 말만 잘하는 이런 모습들이 말은 안 해도 삶 속에서 보여주

무체험적 종교성

무체험적 종교성에는 신앙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험인 기도를 통한 종교적 체험이 없는 신앙을 의미하는데, 그 결과 변화와 발전이 없는 신앙도 포함된다. 변화와 발전이 없는 신앙에는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신앙, 성장이 없는 신앙,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신앙, 종교적 차원에서 성취가 없는 신앙, 의무감에서 하는 신앙 등이 포함된다. 종교적 체험이 없는 신앙과 관련된 진술로는 기도나 명상이 없는 신앙, 기도로 신에게 의지하지 않는 신앙, 초자연적 체험에 의존하지 않는 신앙 등이 있었다.

변화와 발전이 없는 신앙 진술의 예(사례 2):

“내면에 변화 있었다면 조금 더 자비롭고 여유 있으면서 넉넉해지지 않고 오히려 복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나이든 보살이 오래 다녔다고 법당에 자리 같은 것도 어떤 고정된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다고요.”

기도를 통한 종교적 체험이 없는 신앙 진술의 예(사례 7):

“종교의 장점은 일단 비벌 언덕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가장 큰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죠.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에 우리가 종교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얻을게 없죠.”

정서문제성 종교성

정서문제성 종교성은 부정정서를 야기하는 신앙과 정서 조절에 문제가 있는 신앙이 포함된다. 부정정서를 야기하는 신앙과 관련된 진술로는 좌절하는 신앙, 후회와 죄책감을 일으키는 신앙, 불안이나 부담감 혹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신앙,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적으로 가지게 하는 신앙과 열등감이나 자괴감을 느끼는 신앙 등이 있었다. 이런 진술은 종교인보다는 신앙인에게도 더 많이 나왔다. 정서 조절에 문제가 있는 신앙에 대한 진술로는 정서 조절이 안 되어서인지 마음을 편하게 하는 쪽으로만 끌리는 신앙, 종교적으로 비난이나 조언은 피하려는 신앙, 위안이 되지 않는 신앙, 감정 정화가 되지 않는 신앙,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 여유가 없는 신앙, 자기만족만 위한 신앙 등이 있다.

부정정서를 야기하는 신앙 진술의 예(사례 11):

“아~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교회 밖에 살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니까 도덕적인 요구도 많아지고, 신이 성품에 참여해라, 거룩해 져야 된다는 등의 요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늘 우리는, 저는 그게 결핍으로 느껴져요. 그럴 때면 괴롭고 포기하고 싶죠.,” “나에 대한 불신은 아니고 ‘나는 이것 밖에 안 되는구나’하는 자괴감, 마음속에 있던 열등감, ‘나를 무언가

를 해야 되는 데 이게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서 조절에 문제가 있는 신앙 진술의 예(사례 12):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화가 난다거나 기쁘다거나 슬프다거나 할 때 딱히 아이들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없잖아요. 애들이 나도 그렇지만 쑥스럽기도 하고 의아한 행동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소리를 질러서 내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소리를 질러서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발산이 되면서 나한테 스스로한테는 많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지문제성 종교성

인지문제성 종교성은 불평하거나 감사하지 않은 신앙,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신앙 및 인지적 해석에 문제가 있는 신앙이 포함된다. 불평하거나 감사하지 않은 신앙에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포함된다. 역기능적 인지와 관련된 해석에 문제가 있는 신앙과 관련된 진술은 우연한 것을 기적이나 종교적 힘으로 보는 경우, 근거 없는 종교적 신념을 검증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 별 받았다고 생각하는 신앙, 논리에 맞지 않는 신앙, 소신 없고 주관적이지 못한 신앙, 경전에 무지한 신앙,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게 하는 신앙 등이 포함된다. 논리적 비약이나 무비판적 태도에 의해 습관적으로 개종하는 경우나 사람을

보고 하는 신앙도 이 주제에 대한 진술로 포함시켰다.

불평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신앙 진술의 예 (사례 3):

“교리적 차원에서 원불교는 원망의 생활을 감사의 생활로 돌리자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 속에 있으니 감사함을 느끼고 보은하는 은혜를 갚아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르침인데 그런데 자꾸 원망심이 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신앙 진술의 예(사례 6):

“기독교는 한 사람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고도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영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게 할 수도 있죠. 거의 무(無)에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너무 꽂히게 되면 계속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인지적 해석에 문제가 있는 신앙 진술의 예 (사례 9):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종교적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종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돌려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그게 좀 뭐라고 할까 너무 광적이라고 할까요. 허무맹랑한 거 있죠. 진짜 종교는 그렇게 허무맹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가지도 않고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 같은 거 있죠. 이런 종교는 문제죠.”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을 통해 웰빙 차원에서의 역기능적 종교성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보상추구적 종교성, 권력지향적 종교성, 이기적 종교성, 맹목적 종교성, 비사회적 종교성, 비실천적 종교성, 무체험적 종교성, 정서문제성 종교성 및 인지문제성 종교성이 개인의 웰빙을 위협하는 종교성으로 도출되었다.

보상추구적 종교성에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여 복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다. 이는 신이 복을 주거나 벌을 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과 상관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차원에서 보상을 추구하는 종교성이 있는데, 바로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Gorsuch와 Mcpherson(1989)이 개발한 종교지향 척도인 I/E-R(Intrinsic/Extrinsic-Revised)에서도 외적 종교지향, 즉 외적 차원의 종교성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성으로 개념화되기도 하였다. 참고로 Allport와 Ross(1967)는 내적 종교성보다 그런 외적 종교성이 타인에 대한 편견을 갖는 등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보상추구적 종교성의 일환으로 물질주의 신앙이 보고되었는데, 성서에서는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맘몬(Mammon) 신을 따르는 우상숭배로 묘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근주, 배덕만, 변상욱과 김형원(2016)은 한국의 교회의 물질주의를 ‘맘몬에 물든’ 것에 비유하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보상추구적 종교성이 신앙을 하는 개인의 웰빙은 물론 타인의 웰빙에도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 수 있는데 웰빙에 역기능적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Cloniger(1986)는 기질적 차원에서 보상을 추구하는 성격을 설명하며 보상의존(reward dependence)이라는 개념을 주장하였다. 그는 보상의존성이 모노아민 신경전달물질 중에 노어아드레날린 체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보상의존성이 강한 것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극적인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특히 중독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연구로 검증되었다(Yamano et al., 2008). 그런 연구들에서는 보상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노어아드레날린 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문제성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도출된 역기능적 종교성은 권력지향적 종교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신앙을 열등감이 발현된 종교성일 수 있다. 종교단체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나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열등감에 기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임성균, 2006). 그리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신앙은 종교단체에서 타인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갈등을 야기하여 결국에는 본인의 웰빙에 부정적일 수 있다. 특히 성직자인 종교인들이 그런 진술을 많이 한 것은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이 특별히 종교인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이런 인정욕구가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데 그 원인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이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전해경, 2016), 인정욕구가 강한 종교성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성장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증재할 필요가 있다.

과시적 신앙도 권력지향적 종교성으로 구분되어졌다. 생활을 하면서 억압되었던 욕구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진술들이 있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어렵지만, 종교단체에서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일 수 있다. 과시욕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제시 동기가 강한 것으로 표현하는데, 자기제시가 강한 것이 불안이나 우울과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박승순, 최승원, 2014). 일찍이 개인심리학을 주창한 Adler(2013)는 인간이 가진 열등감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정신건강이나 웰빙에 관련이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종교를 권력지향적으로 더 나아가 열등감 해결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기득권에 집착하거나 과시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신이나 타인의 웰빙을 해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선적인 신앙과 강요적인 신앙을 포함하는 이기적 종교성이 웰빙 차원에서 역기능적인 종교성으로 드러났다. 이는 Hunsberger 등(1996)이 부정적으로 여겼던 율통성 없는 절대적 종교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종교관만 옳다는 아집과 고집은 같은 종교단체 안에서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종교와 무관한 대인관계에서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참여자들이 강요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상대의 행동을 죄로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상대를 통제하고자 하는 태도는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신현숙, 박유미, 김선미, 2012). Goleman(1996)은 공감의 부족을 이기심의 원인으로 보았으며 이기심이 타인에 대한 조종이나 착취로 나타날 수 있고 정신병질(psychopath)이나 사회병질(sociopath)로 발현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종교성과 영성에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이타성이라는 주장하는 학자들(Willer, et al., 2013)이 있

는 가운데 이기적인 종교성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맹목적인 종교성이 웰빙을 위협하는 종교성으로 나타났다. 교리적 맹신주의와 과도한 종교적 몰입이 맹목적인 종교성의 요인이었다. 교리적 맹신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다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나 같은 교파에 있어도 자신과 교리적 해석이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종교인이나 신앙인들은 교리적 맹신주의가 무분별한 종교적 선동을 하거나 종교적 흑백논리를 가지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신앙생활에 헌신적인 것은 문제가 없지만, 모든 생활을 내팽개치고 종교에 몰입하여 직장이나 가정에 자신의 의미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웰빙을 크게 위협할 수 있음이 진술되었다. 김찬목(2015)은 맹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인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현상이 문화적 배경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기독교 선교 초기의 높은 문맹률, 유교사상과 혼합된 사머니즘, 한국전쟁, 빠른 산업화 과정 등이 맹신적 신앙의 형성에 일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의 맹신적 신앙 현상을 영적체험에 대한 맹신, 천국에 대한 맹신, 봉사에 대한 맹신, 설교에 대한 맹신, 목사에 대한 맹신, 종교중독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면서 맹신적 신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박적 태도를 줄이고 목표지향적으로 신앙을 하며 모호한 종교의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태생적인 무속성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해치는 신앙, 타인에게 상처 주는 신앙, 대인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신앙 및 대인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는 신앙 등의 비사회적인 종교성이

웰빙에 역기능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가족이나 타인에게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신앙은 다른 사람들의 웰빙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웰빙에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도 그런 신앙이 개인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원래 근본적으로는 종교성이 사회성을 좋게 할 가능성이 있다. 후기 아동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지은, 설경옥, 2013)에서도 종교성은 친사회성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역으로 종교생활을 하며 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은 정신건강이나 웰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 수 있다.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주관적 웰빙(서경현, 2015)이나 심리적 웰빙(손술, 서경현, 2014)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도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웰빙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실천적 종교성이 웰빙 차원에서 역기능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심 의미의 주제로는 베풀지 못한 신앙과 종교에서 제시하는 표준을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이었다. 먼저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봉사를 하거나 자비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강조한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로서 베푸는 마음이나 행동으로 인해 종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참여자들은 진술하였다. 또한 종교에는 종교적 수행은 물론 생활표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교리공부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행동이 종교의 중요한 요소일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실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감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고, 다른 신앙인에게 귀감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성직자나 다른 신앙인으로부터 좋

지 못한 평가를 받거나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웰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화석(2014)도 현대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신앙인들의 비실천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가르침과 실천의 방법에 관한 탐구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무체험적 종교성도 웰빙 차원에서 역기능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종교적 체험을 위해서는 기도와 명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는 신앙에는 종교적 생명력이 없다고 진술되었다. 기도와 명상과 관련이 있는 초자연적 경험을 무시하는 신앙도 역기능적일 수 있는 진술도 있었다. 종교적 체험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도 없다는 것이 강조되기도 했는데, 내면의 변화가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며 종교적 차원에서 성취가 없고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감도 없으며 의무감에 신앙을 하는 것이 개인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철학자 하이데거도 신앙에 있어서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그것을 사유와 관련된 체험, 즉 인지적 체험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김인석(2010)은 그런 체험이 신앙적 감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사례들이 진술한 종교적 체험은 신앙적 감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서문제성 종교성이 웰빙을 위협하는 종교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웰빙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주관적 웰빙 그 자체에 정서적 차원이 포함되어있다. 부정적인 정서를 덜 경험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김정호 외, 2009).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가 완벽주의를 자극하여 불안이나 죄책감을 경험하게 한다면 이는 웰빙 차원에서 역기능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Maltby, 2005). 정서적 위안만을 위해 신앙을 한다거나 역으로 정서적 위안이 되지 않는 신앙도 개인의 웰빙에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종교적 수행을 한다는 것은 정서조절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개인이나 타인의 웰빙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인지문제성 종교성도 웰빙에 역기능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웰빙에 인지적 차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이것도 어찌면 당연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은 주관적 웰빙의 인지적 차원이다(김정호 외, 2009). 먼저 인지적 차원에서 감사하지 않는 신앙이 역기능적이라고 지적되었다. 감사성향이 웰빙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양적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기 때문에(손술, 서경현, 2014), 감사하지 못하거나 불평하는 신앙은 웰빙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종교성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이종석, 정득식, 2017), 자기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하는 신앙은 웰빙 차원에서 역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비합리적인 해석을 하게 하는 종교성도 신앙인의 웰빙을 위협할 수 있다. Ellis(1986)는 특정한 역기능적인 해석이 정신건강이나 웰빙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기패배적 사고가 그렇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인 종교성을 질적으로 탐구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질적 연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그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질적 분석과 해석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질적 연구도 실증연구라고는 하지만 일부 사례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도출된 결론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 양적 연구에도 일반화의 문제는 있지만, 질적 연구의 경우 더 그렇다. 게다가 천주교 신앙인들로부터 얻은 정보는 포함되었지만 현실상 천주교 성직자들을 본 연구에 참여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일반화의 한계가 조금 더 부각시켰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 귀납적 방법의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설연역적 방법으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 가설연역적 방법은 양적 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역기능적 종교성이 웰빙이나 정신건강 변인들과 부적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에 앞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웰빙 차원에서 역기능적 종교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런 시도가 종교성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후속연구들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김근주, 배덕만, 변상욱과 김형원 (2016). 권력과 믿음에 물든 한국교회. 논산시: 도서출판 대장간.
 김인석 (2010). 신앙체험과 현상학적 해석학:

전기 하이데거 사유의 근본동기에 대한 탐구 “불확실성만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흡사한 것이 달리 있을까?” 철학과 현상학 연구, 46, 1-34.
 김정호, 유제민, 서경현, 임성건, 김선주, 김미리혜, 공수자, 강태영, 이지선, 황정은 (2009). 삶의 만족은 만족스러운가: 주관적 웰빙 측정의 보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87-205.
 김찬목 (2015). 크리스천의 맹신적 신앙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3(2), 163-180.
 문화관광부 (1997). 청소년의 영혼과 종교세계 의식조사. 청소년 대화의 광장.
 박미하 (2014).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존감의 매개효과. 신앙과 학문, 19(1), 77-96.
 박승순, 최승원 (2014). 자기제시 기대가 사회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제시 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014(1), 127.
 박신영, 이서정, 현명호 (2012). 내재적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 및 감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2), 449-460.
 박지은, 설경옥 (2013). 후기 아동기의 종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51-68.
 서경현 (2011). 한국여성 독거노인을 위한 웰빙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4), 595-616.
 서경현 (2014). 종교를 가진 고등학생의 영적안녕과 자기개념 및 정신건강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1(3), 219-241.
 설경옥, 박지은, 박선영 (2012). 종교성과 정신

- 건강과의 관계 메타분석 국내 학회지 게재논문(1995-2011)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 617-642.
- 손솔, 서경현 (2014). 대학생의 감사 성향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2), 619-639.
- 신재은, 현명호 (2010).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와 상황적 용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 699-710.
-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47-366.
- 연합뉴스 (2017.12.28.). 종교인구 비율 46%호 하락... 20대는 30%. 서울: 연합뉴스
- 오복자, 김영현 (2012). 영적중재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효과크기에 대한 메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42(6), 833-842.
- 유승무 (2013). 동양사회 내재적 종교성과 베버의 동양사회론. 동아시아불교문화, 13, 264-290.
- 윤화석 (2014). 포스트모던 시대와 신앙의 실천에 대한 성찰. 기독교교육정보, 40, 59-93.
- 이종석, 정득식 (2017). 청소년의 사회적 종교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종교연구 77(2), 95-128.
- 이효선 (2005). 질적 연구: 해석과 이해. 서울: 학현사.
- 임성균 (2006). 열등한 자에게 무슨 자유가 있으랴?: 실낙원에 나타난 성과 권력. 밀턴연구, 16(1), 93-112
- 전은식, 서경현 (2012). 신앙인들의 종교지향, 종교적 원리주의, 영적 웰빙 및 주관적 웰빙.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 1067-1086.
- 전혜경 (2016).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정욕구, 갈등적 독립,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7(3), 97-131.
- 정성진, Ji, 김신섭, 서경현 (2010). 종교지향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 대한 종교적 원리주의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19-41.
- 홍경란, 이지연 (2014). 교사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2(2), 325-349.
- 황혜리, 서경현, 김지윤 (2011). 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 709-724.
- Adler, A. (2013). *The Science of Living* (pp. 96-97). New York, NY: Routledge.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Perseus Books.
- Allport, G. W., & Ross, J. M.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32-443.
- Altmeyer, B., & Hunsberger, B. (1992). Authoritarianism, religious fundamentalism, quest, and prejudic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 113-133.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2).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 *American Psychologist*, 47, 1597-1611.
- Andreasen, N. J. C. (1972). The role of religion in depression.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11, 153-166.
- Argyle, M. (2001).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Routledge.

- Ashkanani, H. R.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s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 case of Kuwaiti car accident victims. *Traumat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15(1), 23-28.
- Bergin, A. E. (1980). Psychotherapy and religious valu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75-105.
- Bergin, A. E. (1983).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A critical reevaluation and meta-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4, 170-184.
- Bowie, J., Juon, H. S., Taggart, T., Thorpe, R. J., & Ensminger, M. (2017). Predictors of Religiosity in a Cohort of African Americans. *Race and Social Problems*, 9(1), 29-41.
- Chamberlain, K. & Zika, S. (1989). Religiosity, life memory, and well-being: Some relationships in a sample of wome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8, 411-420.
- Chatters, L. M., Bullard, K. M., Taylor, R. J., Woodward, A. T., Neighbors, H. W., & Jackson, J. S. (2008). Religious Participation and DSM-IV Disorders Among Older African Americans: Finding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American life.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6, 957-965.
- Cloninger, C. R. (1986). A unified biosocial theory of personality and its role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states. *Psychiatric developments*, 4(3), 167-226.
- Diener, E., Tay, L., & Myers, D. G. (2011). The religion paradox: If religion makes people happy, why are so many dropping ou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6), 1278-1290.
- Dull, V. T., & Skokan, L. A. (1995). A cognitive model of religion's influence on health. *Journal of Social Issues*, 51, 49-64.
- Ellis, A. (1980). Psychotherapy and atheistic values: A response to A. E. Bergin's "Psychotherapy and religious valu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635-639.
- Ellis, A. (1986). Do some religious beliefs help create emotional disturbance? *Psychotherapy in Private Practice*, 4, 101-106.
- Ellis, A. (2000). Can REBT be effectively used with people who have devout beliefs in God and relig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1, 29-33.
- Ellison, C. G. (1991). Religious involve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80-99.
- Frankl, V. (1967).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New York: Simon & Schuster.
- Genia, V. & Shaw, D. G. (1991). Religion, intrinsic - extrinsic orientation, and depression.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2, 274-283.
- Giorgi, A. (2009).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oleman, D. (1996) *Emotional Intelligence* (pp. 104-110). London: Bloomsbury.
- Gorsuch, R. L., & McPherson, S. E. (1989). Intrinsic/Extrinsic Measurement: I/E-Revised and Single-Item Scal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8, 348-354.
- Guba, E. G., & Lincoln, Y. S. (2005). Paradigmatic controversies, contradictions, and emerging influence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 Qualitative Research, 3rd ed.* (pp. 191-215). Thousand Oaks, CA: Sage.
- Hunsberger, B., Alisat, S., Pancer, S. M., & Pratt, M. (1996).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religious doubts: Content, consciousness and complexity of th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6*, 39-49.
- Idler E. L. (1987). Religious involvement and the health of the elderly: Some hypotheses and a test. *Social Forces, 66*, 226-238.
- Kirkpatrick, L. A.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changes in religious belief and behavior as a func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dult attachment styl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 207-217.
- Maltby, J. (2005). Protecting the Scared and expressions of ritual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insic dimensions of religiosity and unhealthy guilt.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8*, 77-93.
- McIntosh, D. N., Poulin, M. J., Silver, R. C., & Holman, E. A. (2011). The distinct roles of spirituality and religiosity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after collective trauma: a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responses to the 9/11 attack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4*(6), 497-507.
- Moreno, O., & Cardemil, E. (2013).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services: An exploratory study of help seeking among Latinos. *Journal of Latina/o Psychology, 1*(1), 53-67.
- Murray-Swank, A. B., Lucksted, A., Medoff, D. R. Yang, Y., Wohlheiter, K., & Dixon, L. B. (2005). Religiosity,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ubjective Burden of Persons Who Care for Those With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57*(3), 361-365.
- Nielsen, S. L., Johnson, W. B., & Ellis, A. (2001).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Religious Persons*.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argament, K. I., Smith, B. W., Koenig, H. G., & Perez, L. (1998). Patterns of positive and negative religious coping with major life stressor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4), 710-724.
- Parveen, S., Sandilya, G., & Shafiq, M. (2014).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among Muslim youth. *Indian Journal of Health and Wellbeing, 5*(3), 316-319.
- Paul, G. S. (2005). Cross-National Correlations of Quantifiable Societal Health with Popular Religiosity and Secularism in the Prosperous Democracies. *Journal of Religion & Society, 7*, 1-17.
- Peacock, J. R., & Poloma, M. M. (1999). Religiosity and Life Satisfaction Across the Life Cours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8*, 321-345.
- Peterson, L. R., & Roy, A. (1985). Religiosity, anxiety, and meaning and purpose: Religions' consequenc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7*, 49-62.
- Piedmont, R. L., & Moberg, D. O. (2003).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3*. Boston: Brill.
- Pollner, M. (1989). Divine relations, social relations,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92-104.
- Poloma, M. M., & Pendleton, B. F. (1991). The effects of prayer and prayer experiences on

- measures of general well-be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 71-83.
- Provonsha, M. (2006). Religious Belief and Societal Health. *Skeptic*, 12(3), 26-29.
- Reker, G. T., Peacock, E. J., & Wong, P. T. (1987). Meaning and purpose in life and well-being: A life-span perspective. *Journal of Gerontology*, 42, 44-49.
- Rosenstiel, A. K., & Keefe, F. J. (1983). The use of coping strategies in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Relationship to patient characteristics and current adjustment. *Pain*, 17, 33-44.
- Schütze, F. (1984). Kognitive Figuren des Autobiographischen Stegreiferzählens. In: Kohli, M. Robert, G. (hrsg) *Biographie und Soziale Wirklichkeit*. Stuttgart, 78-117.
- Singh, S. (2014). Well-being and emotion regulation in emerging adults: The role of religiosity. *Indian Journal of Health and well-being* 5(3), 341-344.
- Tangney, J. P. (1993). Shame and guilt. In C. G. Costello (Ed.), *Symptoms of depression* (pp. 161-180). New York: Wiley.
- Veenhoven, R. (1994). *Correlates of Happiness* (3 Vols.). Rotterdam, The Netherlands: RISBO, Center for Socio-Cultural Transformation.
- Wilber, K. (1997). *The eye of spirit*. Boston: Shambhala Publication.
- Willer, R., Wong, E., Saslow, L. R., John, O. P., Piff, P. K., Impett, E. A., Kogan, A., Antonenko, O., Clark, K., Feinberg, M., Keltner, D., & Saturn, S. R. (2013). The social significance of spirituality: New perspectives on the compassion-altruism relationship.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5(3), 201-218.
- Witter, R. A., Stock, W. A., Okum, W. A., & Haring, M. J. (1985). Educ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6, 165-173.
- Yamano, E., Isowa, T., Nakano, Y., Matsuda, F., Hashimoto-Tamaoki, T., Ohira, H., Kosugi, S. (2008). Association study between reward dependence temperament and a polymorphism in the phenylethanolamine N-methyltransferase gene in a Japanese female population. *Comprehensive Psychiatry*, 49(5), 503-507.

논문 투고일 : 2018. 01. 25
 1차 심사일 : 2018. 01. 31
 게재 확정일 : 2018. 04. 09

The Qualitative Exploration of Dysfunctional Religiosity for Well-being

Kyung-Hyun Suh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qualitatively the people's dysfunctional religiosity for well-being.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6 the clergy and 6 believers (devotes). The clergy included three pastors of Protestant churches, two Buddhist monks (male and females), and one Won-Buddhist monk. Six devotes included two Protestants, two Catholics, and two Buddhist. There were one female in the clergy and three females in devotes. Data gathered from narrative interviews were analyzed with techniques based on Giorgi's phenomenological strategies and procedures. Twenty two topics derived from their assertions and statements, nine main meanings were classified based on those topics. Main meaning were reward-seeking religiosity, authority oriented religiosity, selfish religiosity, blind or unconditional religiosity, asocial religiosity, inactive religiosity, inexperienced religiosity, emotionally problematic religiosity, and cognitively problematic religiosity. Based on derived topics and main meaning,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for example the scale development, and information of strategies for promoting well-being of religious pers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qualitative study, dysfunction, religiosity, faith, well-being